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역사적인 명령을 하달



전략사령인 조선로동당
수소탄 시험준비총력을 보강한다
제1비서이시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
104(2015)년 12월 15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
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
신데 이어 주체105(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
하시였다.

2015. 12. 15
군수공업부

남조선은 수호한
수소탄 시험준비가 끝났음을
시행할 준비가 끝났음을
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
2016. 1. 3
2016년 1월
군수공업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주체
104(2015)년 12월 15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
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
신데 이어 주체105(2016)년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진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관련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이 발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날을 이으며 거대한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일어나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제원들이 정확하다는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수소탄시험은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이 세상에 적대시라는 말이 생겨난이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것은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침략야욕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썩우려고 발광하는 잔악한 날강도무리가 바로 미국이다.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모든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形形色색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고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무리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것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을것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흉악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있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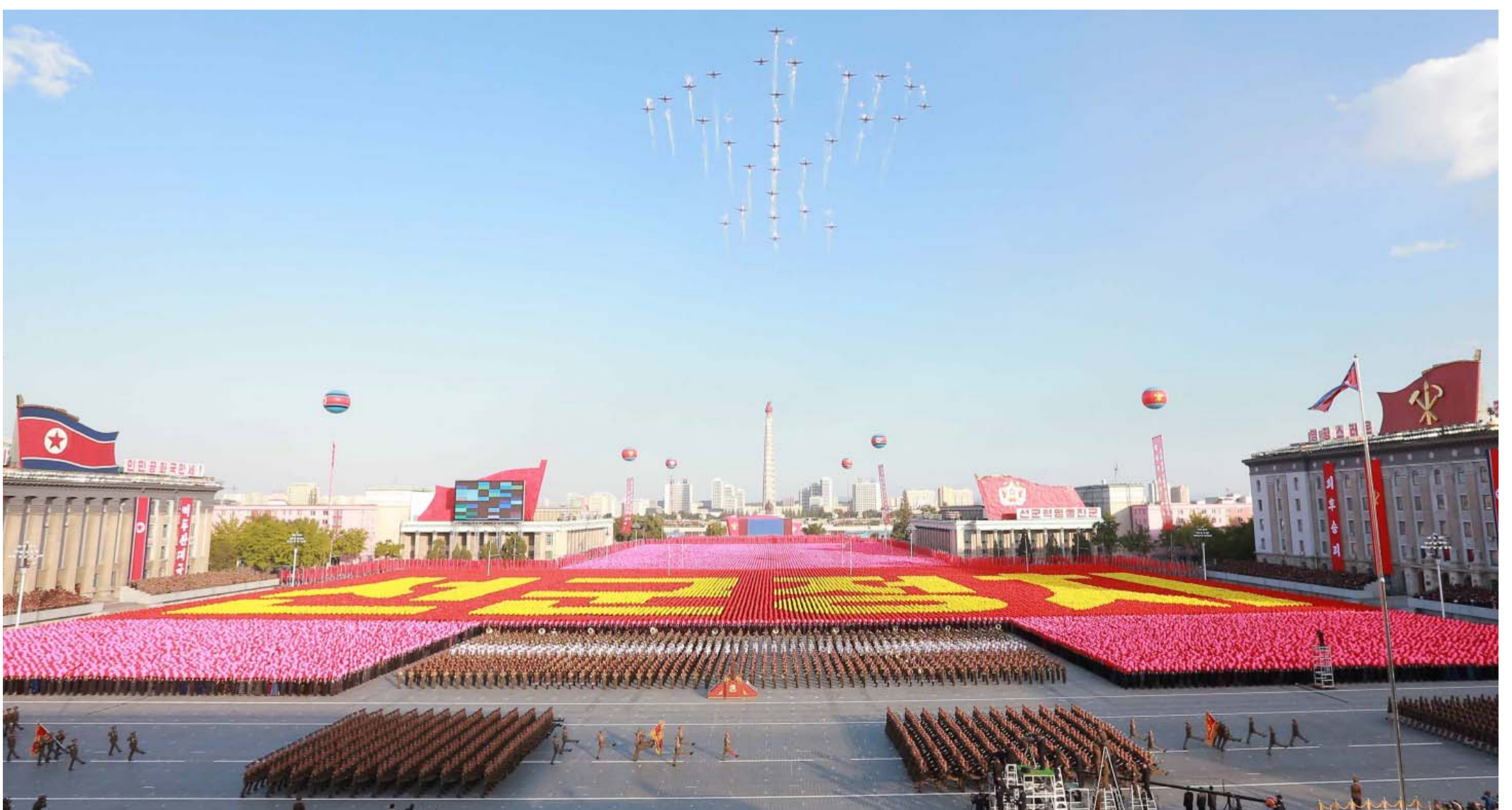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은 무궁번영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평양



반만년 민족사의 대경사

주체 105(2016)년 1월 6일 조선의 지사에서 열린 거대한 퇴성이 온 지구를 뒤흔들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수소탄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기쁨과 환희에 넘쳐 들끓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의 국력이 어떤 것인지 세계앞에 보여준 대장기이다.》, 《한다면 하고야마는 조선의 결단력, 빈말을 모르는 우리의 억센 힘을 과시한 일대 경사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당당히 핵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정말이지 경에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쁨을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

겠는가. 이 공지와 자부를 안고 올해 풍요한 가을을 안아 오겠다.》, 《이제는 못해낼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신심과 자부심으로 하여 온몸에 힘이 솟음친다. 이 기세로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가져 오겠다.》...

이번에 공화국이 첫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수소탄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리용한 핵무기를 말한다. 핵융합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보다 크고 핵융합반응에 의해 중성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 효률이 높으며 핵분열반응과는 달리 핵분열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질량인 립계 질량이 없이 소형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방사성물질도 생기지 않는다. 또 그 위력은 핵폭탄에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기에 높은 핵무기기술을 요구하는 수소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만큼 적다.

바로 이런 수소탄을 100%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성공하였으니 어찌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지 않겠는가.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은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 자위의 국력은 훨씬 더 강

해졌으며 우리를 어찌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포성도 수소탄의 퇴성마냥 머지않아 장쾌하게 터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이번이 군민이 억척같이 새겨안은 신심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총대가 약했던랏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민의 쓰라린 고통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다. 그런 우리 겨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선군령도로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었고 오늘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수소탄을 가진 강위력한 국가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커다란 심혈을 바쳐오 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군수공업기지를 찾고찾으며 자기 힘과 기술로 최첨단

무장장비를 개발완성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다종다양한 정밀라격수단들이 개발완성되고 그 성능이 날로 향상되는 속에 지난해에는 전략잠수함 수중탄도탄 시험발사에서 성공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첫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이 울려 퍼질 수 있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새로 개진된 평천혁명사적지를 현지도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

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실 때 사람들은 미처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달도 못되어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이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담보하며 행성을 뒤흔든 것이다.

수소탄시험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면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김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리러 보게 하라고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을 고무하시고 시험날자까지 정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지략, 세심한 지도가 조선의 국력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국력을 최상최대로 강화해주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영원히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온 겨레가 높이 칭송하고 받들어야 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시다.

그이는 조선의 힘이고 모든 승리의 기치이시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강력한 핵보유국이 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력사적전군의 발걸음을 보다 힘차게, 신심드높이 내짚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수소탄의 폭음은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지리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각계층의 목소리

당당하고 멋있다

이번 수소탄성공은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한 일대 사변이며 그로 하여 우리 교원들모두의 가슴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었다. 적대세력들이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지만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행성을 뒤흔든 우리 조국의 그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새해 총진군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우리 조국의 온한해가 눈부신 기적으로 일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오전일

오늘 우리 나라에서 열린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은 민족의 안녕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조치로서 공화국의 결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확고한 결심을 실증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온갖 도전도, 그 누구의 강권과 전횡도 자기의 사상과 제

기쁨에 또 경사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이것은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의 높이이다.

수소탄은 기존의 핵탄에 비해 할 때 기술적난도가 비할바 없이 높다고 한다. 또 수소탄 시험을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없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하려면 그만큼 무수한 관련기술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수소탄은 세계의 몇 안되는 나라만이 보유하고 있

도, 위업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건드리거나 놀래울 수 없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김형직사범대학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용부

정말 멋있다. 아니 통쾌하고 시원하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알리는 중대보도와 공화국정부의 성명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의 최후승리를 선언한것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만세를 부르고싶다.

한다면 하는 존엄은 조선의 의지와 민족의 기개가 또다시 만천하에 과시된 력사의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김정은시대에 민족의 대통운이 려다.

평양고무공장 노동자 김철수

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소탄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하여 개발해냈으니 경사면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우리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특성과 변영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계신다.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주권을 수호

하기 위한 정의의 길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최후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남포시 외우도구역 최현룡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조선의 과학자된 무한한 공지와

평화와 안정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

적대세력들은 전몰하여 비명을 지르고있으니 막 통쾌하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 조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제는 그 어떤 어중이떠중이들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게 되었고 우리 인민은 자랑스러운 핵보유국의 인민으로 세계를 눈아래로 굽어보며 마음껏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수소탄이 이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영원히 지켜내고 지역의 안전도 믿음직하게 담보해줄게 될것이다. 지구를 뒤흔든 장쾌한 수소탄의 퇴성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정의의 손에 쥐어진 자위의 수소탄은 평화의 가장 위력한 보검이다.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김성국

자주의 핵퇴성, 정의의 핵우리가 전세계를 들었다놓았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자부심으로 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가증스러운 미국의 정수리를 자위의 핵퇴성으로 강타하였으니 속이 후련하다.

미국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우리 조선민족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민족인가!

장하다. 내 조국아, 평양생물기술연구원 연구사 최승복

경사가 안겨졌다.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오늘의 사변을 맞고보니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민족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부듯하게 절감하게 된다. 1년을 10년맞잡이로 전변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내 조국이 수소탄 성공과 같은 특대형사변을 앞으로도 계속 창조하리라 믿는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직장장 김성철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되

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성공소식은 온 나라를 환희의 불도가니속에 뿜어번지게 하고 있다.

나역시 그러하다.

지금 내양전너 악의 제국 미국의 혼비백산한 물결이 보이고 숨넘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통쾌하다.

미국이 교란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은 바로 우리의 이 힘으로 지킬것이다.

행성을 뒤흔든 자위의 핵퇴성은 미국의 파멸을 알리는 정의의 축포탄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1동 김련화

고마움의 큰 절을

100여년전 대포와 함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야 했던 우리 민족이었다.

그러던 우리 겨레가 이제는 세계 몇 안되는 수소탄보유국이 되었다.

민족의 국력을 최대로 강화시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큰 절을 올린다.

자강도인민위원회 과장 김승진

수소탄시험의 성과적진행에 대한 특별보도에 접하고보니 기쁨에 막 눈물이 나고 온 세상을 얻은듯 한 환희의 감정뿐이다.

조선은 역시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한다면 하고 하면 반드시 성공과 승리

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기적의 나라라는것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은 자기의 장쾌한 퇴성으로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본다.

이번의 수소탄성공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대세력의 압살공세를 맞받아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이고 곡절많은 운명사를 기록해온 조선민족의 승리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의 승리이다. 이보다 더 기쁜 일, 이보다 더 사변적인 일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2016년의 서막을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으로 빛나게 열어주신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린다.

평양시 서성구역 상흥동 박경애

조선에서 울린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

지난 1월 6일 낮 12시, 평양에서는 첫 수소탄시험 성공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메가톤의 위력으로 행성에 지렁지렁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계에 일파만 파로 충격의 거세찬 해일을 일으켰다. 조선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법석 떠들며 혼비백산을 연 출하고 세계여론의 초점은 조선의 새로운 수소탄으로 모아졌다.

세계를 통채로 뒤흔든 조선에서의 수소탄시험 성공,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충격만큼 가치 사변적이다.

1. 강대한 민족의 등장

조선이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다.

전세계에 조선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것이나 같다. 이는 수소탄을 보유한 강대한 민족이 출현하였음을 의미하는것이다.

핵은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낸 최강의 무기이다. 수소탄은 핵융합에너지를 리용하는 핵무기의 한 형태이다.

무거운 핵이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리용한것이 원자탄이며 가벼운 핵이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리용한것이 수소탄이다. 가벼운 핵이 융합될 때에는 무거운 핵이 분열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일반적으로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 그 위력이 100배 또는 1000배이상 강력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가공할 핵무기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수소탄을 손에 쥔 나라는 불과 몇개 나라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 반열에 이젠 조선이 당당히 들어선 것이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것이 우연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기록해왔다. 단군조선, 고구려와 더불어 강대성을 떨치던 민족의 국력은 조선봉건왕조 5백년에 점점 쇠잔해지고 나중에는 두고두고 지울수 없는 을사년의 치욕까지 당해야 했다.

령토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다 큰 나라들밖에 끼여있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우다 통채로 나라마저 먹히워야 했던 민족사의 슬픈 비극, 결국 힘없는 약소민족의 서러운 운명이였다.

그 당시 프랑스만화가

비교는 렬강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그려놓고 그들이 드리운 낚시줄에 물려있는 고기에다가 《조선》이라는 글을 쓴 만화까지 썼다.

조선이 너는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느냐 하고 이 나라의 한 시인이 설분을 토해냈고 살길 찾아 남부너대하고 고향을 떠나는 류량민들의 행렬이 그 칠줄 물랐다.

그러했던 조선민족이 오늘 수소탄을 보유한 강

2. 승자의 웃음짓는 조선

지금 조선에서 울린 수소탄의 폭음에 제일 기겁하고 혼비백산해하는것은 미국이다.

《유엔안보리의 결의위반》이니, 《강력한 제재》니 하며 떠드는 미국의 모습은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은 교목의 모습그대로이다.

미국이 그럴만도 하다.

조선의 이번 수소탄시험은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미국을 겨냥한것이다. 조선은 정부성명에서도 수소탄시험이 미국의 가증스러운 침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미국에 창끝을 겨눈 조선의 수소탄, 그것을 상상해보라. 미국이 어찌 공포에 떨지 않을수 있으랴.

조선과 미국사이의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대결은 세기를 이어온다. 그 대결은 미국이 강요한것이였다.

평화와 친선을 대외정책리념으로 삼는 공화국을 미국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까지 적대시압살의 일변도로, 온갖 핵위협으로 못살게 굴어왔다.

그에 공화국은 자위의 핵을 쥐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대한 민족으로 자라났다.

강국의 징표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다. 국력이며 그 국력중의 국력이 바로 군력이다. 나라를 지키는 힘, 이것이 없다면 모든 재부는 한순간에 재가루로 흩날릴수 있기에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군사에 힘을 넣는것이다.

조선은 수소탄시험의 령사적인 성공으로 크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강국으로, 강대한 민족으로 솟구치는가를 자랑스럽게 과시하였다. 동방의 해솔는 나라 하하여 그 이름도 조선, 이 아름다운 나라의 김정은시대에 와서 수소탄을 소유한 최강의 나라로 행성에 혜성같이 등장하였다.

2016년 1월 6일, 조선민족은 이 사변적인 날을 두고두고 추억하리라.

3. 통일강국의 미래가 온다

조선의 수소탄성공, 이는 조선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분계선을 마주하고있는 북의 수소탄보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의 핵은 자위의 핵이고 미국을 겨냥한것이지 한동포인 남녘겨레를 위협하는것이 아니다. 《위협》이라고 보는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이다.

크지 않은 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면 서로가 피해를 본다. 공화국은 평화로운 조선의 통일,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희망한다.

남조선의 보수정객들과 언론인들이 떠드는것과는 정반대로 조선의 핵은 미국의 침략을 막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

장구한 인류사는 힘센 나라와 민족이 힘이 약한 나라가, 라민족을 점령하고 짓밟아온 력사이다. 힘이 강하면 그 힘을 외부에 공갈압살하려던 미국의 흉계가 산산조각났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속에서 재난을 당한 나라와 민족이 헤아릴수 없다. 침략군대의 발골밑에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채 없어진 실례도 허다

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었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었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었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었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었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최강의 억지력이라는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렸다가는 미국본토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이제 북의 수소탄악몽에 끝없이 시달리게 되였다.

지난해 조선의 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물결을 헤치고 불쑥 솟구쳐올랐을 때 미국은 머리칼을 곤두세워야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수소탄까지 쥐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조선이 강대한 수소탄을 손에 쥐었다는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수소탄은 소형화된 원자탄을 기록제로 쓴다. 조선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완료하였

조선에서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성공시킨 경이적인 사변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고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있다.

공화국정부성명에도 명백히 천명되어있는것처럼 수소탄개발은 철두철미 미국의 가증스러운 침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 핵위협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미국은 대조선압살을

정책화하고 《북조선붕괴》를 로골적으로 떠들고있으며 온갖 수단을 발동하여 저들의 비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복합전쟁연습들을 발광적으로 벌리고 핵합선, 전략핵폭격기 등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에 집결시키고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연습들을 미친듯이 벌려오고있다.

이 하나 던진것이 없고 판계개선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 모든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거부하였으며 압살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공화국의 무장해제를 노린 《핵포기》를 요구하고 《인권》이니 뭐니하며 비렬한 모략과 제재소동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는 바로 미국의 이 철면피하고 강도적인 책동에 대응하여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포악무도한 미국을 겨냥한것이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미국이 본심이 명백하

고 그 범죄적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는다는것은 굴종과 죽음을 강요당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는 바로 미국의 이 철면피하고 강도적인 책동에 대응하여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포악무도한 미국을 겨냥한것이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죽음에 강요당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인명을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우리 민족은 더욱 날

카롭게, 더욱 강력하게 버려져진 정의의 보검으로 시시각각으로 닦쳐오는 미국의 핵위협, 핵공격을 철저히, 무자비하게 쳐물리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이 이룩한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대해 미국이 가장 신경을 도사리며 《강력한 제재》니 뭐니 하며 누구보다도 야부재기를 치는것은 그대

미국이 단계적으로 도수를 높여오던 공화국에

수신 길원

대한 핵위협과 공같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였다.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추종세력을 끌어안아 그 무슨 《아시아재균형전략》이라는것을 실현해보려던 미국의 《계획》도 말그대로 풍지박산이 나게 되였다.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인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반공화국적대세력에게는 자위의 철추를 안기는 퇴성벽력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단계적으로 도수를 높여오던 공화국에

수신 길원

대한 핵위협과 공같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였다.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추종세력을 끌어안아 그 무슨 《아시아재균형전략》이라는것을 실현해보려던 미국의 《계획》도 말그대로 풍지박산이 나게 되였다.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인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반공화국적대세력에게는 자위의 철추를 안기는 퇴성벽력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단계적으로 도수를 높여오던 공화국에

수신 길원

시뮬

자 랑 차 다 우 리 민 족 자 강 의 힘 !

조 선 의 힘

김 태 룡

천지를 진감하며 폭풍쳐올린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천만의 가슴에도 터져오르는가
이 땅에 내뿜치는 열광의 벽찬 환희여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걱정의 만세 감격의 박수갈채로는
다 터칠수 없는 민족의 이 희열
격동으로 뉘트는 가슴
세상을 향해 열어제쳐 소리높이 웨치노니
세계여 들으라, 우리에게겐 수소탄이 있다

세계의 지심 통채로 뒤울리며
천하를 깨치는 조선의 힘이
제국주의를 밀뿌리채 흔드는 소리
침략자 미국의 먹살을 거머쥐고
가증스런 숨줄을 부스러뜨리는 소리

오, 이 힘이다
반만년민족사가 그토록 원했고
허리띠를 조이고 조이면서도
남에게 짓눌러 살지 않기 위해 바랬던 힘
그 힘이 오늘은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
최강의 핵억제력 역세계 틀어쥐고

누구나 조선의 위력 조선의 힘앞에
감히 회려펴게 나서는자들이

하 늘 이 무 너 져 도

김 송 립

행성을 뒤흔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성공소식
이 땅이 세차게 끓어번진다
세상을 놀래우는 민족의 대경사
크나큰 감격이여 격정이여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전대미문의 고평과 봉쇄
핵참화까지 들썩우려는 잔악한 날강도무리
미제의 면상 호되게 후려갈기며
조선이 수소탄시험을 성공시키리라고

핵전쟁의 불기를 몰아오는 침략자
포악무도한 광란을 산산이 깨부시며
오늘은 조선의 첫 수소탄이
지심을 울리며 터져올랐거니

약육강식이 란무하는 이 세계에서
자기를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를
민족번영의 담보는 어디에 있는가를
천만마디 말이 아니라
자강의 힘, 수소탄의 폭음으로 보여준 조선

더이상 핵은 제국주의소유물이 아니다
정의의 핵은 조선의것!
조국이여! 겨레여!

정 별 의 선 언

리 송 일

핵무기를 휘두르며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유린해온
저주스런 미국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핵전쟁으로 말살하려 날뛰는 미국

은 세상을 뒤흔들며

그 무슨 위협과 공갈을 운운하며
목청 돋구어 고아대는자들이
조선의 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

시아비야하지 말라
그것은 림종에 가까운 단말마일뿐
이 힘을 앗으려 흥정하려 들지 말라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안전
우리는 결코 청탁과 타협으로 얻지 않는다

수소탄보유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내린대도
포기할수 없는 당당한 자위적권리
이 땅 삼천리의 평화
민족안녕의 미래를 담보하는 억척의 보검

우리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대장거의 금문자로 빛날
수소탄!
목메여 불러보는 그 부름으로
더더욱 위대하다 강대한 조선이여

천만년미래 굳건히 담보해주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필승의 힘으로
조선은 노도쳐 나아가리라
조선의 힘은 길이 무궁하리라!

최 강 의 핵 억 제 력 을 지 닌 이 공 지

김 송 립

최강의 핵억제력을 지닌 이 공지
세상이 들썩하게 소리쳐 자랑하라

첫 수소탄시험 성공!
그것은 누리를 진감하며
세계를 더 높이 더고선 우리의 존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게
더더욱 강철같이 억세어진 우리의 국권!

오산하지 말라
이룰수 없는 망상에서 헤매이지 말라
우리의 핵은 그 누가
놓으라고 해서 폐기하라 해서
포기할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핵이란
정의란 말이고 평화란 말이며
승리이고 생명이란 말
영원히 핵포기는 없으리라
이 행성우에 침략세력이 살아 꿈틀대는 한

오, 세계는 보게 되리라
역세계 다져온 정의의 핵보검으로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우리 민족에게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에게
조선이 어떻게 쓰라린 치욕을 주는가를

거 대 하게 터 친 수 소 탄 의 폭 음 으 로

리 송 일

거대하게 터친 수소탄의 폭음으로
우리 민족은 단호히 경고하거니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조선은 핵강국이다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
새해의 장엄한 서막을

우리는 첫 수소탄
장대한 폭음으로 열어제쳤다
조선의 본패를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전률로 몸부림치는 악몽에 허덕이며
그 무슨 결의요, 제재요 떠들어보라
어중이떠중이들의 그 궤변
수소탄폭음으로 짓눌러버리며
억척의 기상 만천하에 떨치는 조선

힘이 없어 침략자의 발밑에 무릎 꿇는
나약한 민족이 결코 아니다
날강도 미제와 천백배 결산을 하고
야말

민족의 의지
민족의 보복을 만장약해 터뜨린
수소탄폭음 이것은 우리의 경고이다

조 선 은 지 구 를 흔 들 었 다

김 영 일

2016년 새해
강성국가의 휘황한 래일
그러보던 마음과 마음들에
가슴을 치는 충격으로 전해졌어라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이

희망찬 새해의 발걸음
조선은 힘차게 내짚었다
수소탄의 우렁찬 폭음으로
세계를 뒤흔든 조선의 강대함
세계는 보았어라 세인은 들었어라

반만년 민족사에
2016년 1월 6일은
민족적대경사 특기할 사변의 날
조선민족의 존엄이
만리창공에 치솟아오른 날

오늘 우리는 가슴이 더 넓어졌어라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감히 당할자 그 누구나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던 그 전횡은
이제는 영영 끝장나고말았다

아 , 1 월 6 일 !

김 윤 식

장쾌한 활화산의 거대한 폭발인가
일시에 터져오른 환호성 환호성...
누구나 목메여 다시 외워본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오, 반만년 장구한 민족사에
오늘처럼 기쁜 날 과연 몇번이나 있었
더나
화승총 한자루 변변한것 없어
망국의 피눈물 뿌려야 했던 우리 민족
너무도 꿈같고 너무도 경이로워
뜨겁게 안아보는 경사의 날 1월 6일이여

물어보자 너 정녕
이 땅에 저절로 밝아온것이나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 거연히 틀어쥐시고
오늘의 패승을 안아오신
그이는 과연 어느분이시냐

어려온다 인민의 운명 한몸에 안으시고
사납게 밀러드는 제국주의 폐무리
단매에 처물리칠 백승의 보검 안겨주시려
군력강화의 길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원수님의 그 영상

원수님의 그 영상

하나의 강도를 돌로 갈라놓고
분렬의 고통을 오늘까지 강요하며
호시탐탐 전쟁의 불을 일으키려
무모한 광란에 매달리는 미국
우리는 너에게 죽음을 주리라!

핵은 너의 독점물이 아니다
똑똑히 보아라, 미국
우리의 수소탄폭음은
조선민족의 천만년미래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을

《인권》이요 《핵문제》요...
더이상 우리를 건드린다면
결단코 미국 너의 운명 끝장내리라
수소탄폭음 이는 너에게
조선이 내리는 징벌의 최후선언이다

제 재 와 압 력, 공 갈

김 영 일

제재와 압력, 공갈
파도처럼 겹쳐드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불사신으로 솟구쳐오른 조선
정의를 지켜 평화를 수호하여
조선은 수소탄폭음을 높이 올렸다

천하명장을 높이 받들어 모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제국주의 먹살을 쏘켜쥐고
승리의 폭음을 터치는 나라
조선의 강대성은 지구를 흔들었다

자랑하라 겨레여
민족적공지를 가슴뿌듯이 안고 살라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민족의 만년재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

조선은 지구를 흔들었다
2016년 새해의 첫기슭에서
새해의 이 폭음
승리의 포성으로 울려가리라
장엄하게 힘차게 울려가리라

우 리 다 는 물 랐 어 라

김 윤 식

우리 다는 물랐어라
삼라만상 고요한 깊은 밤에도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오직 한분 그이께서만
내리는 찬눈 맞으시며 잠 못 들고계신줄
승리의 오늘을 한치한치 앞당겨오고계신줄

무슨 말로 감사드리랴
힘이 약하면 제 주먹으로 눈물 씻어야 하는
약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민족만대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께

지니신 천품
강의한 기질도 백두산 그대로이시고
담력과 배짱도 억만년 드림없는
백두산 그대로이신 원수님 높이 모셔
민족의 존엄과 영광 하늘땅에 차넘친다!

더 강대해지고 더 젊어진 백두산대국은
바로 오늘 새해의 핵퇴성을 승전고로 올렸거늘
김정은원수님따라
조선은 최후승리의 포성 울렸다
승리는 조선의것이다

승리는 조선의것이다

민족 존엄과 번영의 시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으로 존엄과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있다.

정치사상적위력이 공고하고 군력이 강하며 자기의 힘으로 국가경제력을 다지며 민족의 최전성기를 열어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게 되었다.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 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신것은 민족의 무상의 행운이고 더없는 영광이다.

천리혜안의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령활하고 로속한 전개력은 그의 특출한 자질이고 령도실력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발전의 길을 옳바로 걸어간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없다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던 자랑스러운 력사도 순간에 옛일로 물러가고만다.

위대한 계승은 위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부터 공식 발표하신 불후의 로작들은 수십여권을 헤아리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

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을 모르고 애국위업을 즐기치게 다 그쳐나가도록 하는 주체의 화불이다.

철학, 군사학,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 등 모든 학문과 분야, 령역에 도통하시고 시대성과 계승성, 진취성과 원칙성, 로속성과 령활성이 리상적으로 결합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에서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창창한 전도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만능의 보검이며 비약과 변혁의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애국위업은 국가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적대세력과의 대결과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전면대결전이며 국가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힘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이다.

세계전쟁사와 동서고금의 군사적경험, 현대군사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복잡하고 첨예한 정치군사정세속에서도 령활무쌍하고 립기응변하는 령군술과 무자비한 대응방식으로 침

략세력의 도전을 걸음마다 단호히 제압하시는 최세의 천출명장이다. 위력한 전투합선들과 초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체계를 비롯하여 나라의 자위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는 그의 령도는 상대가 총칼을 빼들면 장검과 대포를 내대는 조선의 기상을 백배 하여주었다.

철령과 오정산으로부터 최남단열점지역에 이르는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시며 싸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고 거세찬 훈련열풍을 일으켜주시는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무적강군으로, 우리 나라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지난해 8월 조선반도에서 극단으로 치닫던 무력충돌의 첨예한 위기가 가셔지고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게 된것은 조국수호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전진단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전민적강한 자위적힘이 안아온 패승이었다. 지난 6일 장쾌하게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켜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공화국의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 적대세력의 영원한 패전의 전통이 력사의 폐지

에 기록되고있는것이다.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며 사람들의 생활감정의 반영이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 애창하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 지리》라는 구절도 있는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전례없는 비약과 기적으로 나라가 젊어지고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마중가는 청춘시대이다. 1년을 10년 맞잡이로 도약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이다.

예로부터 하루에 천리를 가는 전설의 천리마는 지난 세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시기에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며 발전하는 조선의 기상을 상징하였다. 당시 세계는 조선을 가리켜 《천리마의 나라》, 《천리마조선》이라고 경탄하였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천리마이름을 달기도 하였다.

그때의 그 비약, 그 기상이 오늘날 다시금 새로운 천리마속도, 만리마속도로 이어지고있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 미래를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경제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은 빛나는 현실로 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 평양시버섯공장, 평양메기공장, 원산구두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5월9일메기공장,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자강력을 상징하고 시대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현대적인 산업시설들과 문화교육시설들, 주택지구들을 비롯한 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새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이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기존개념과 낡은 방식과 틀이 사라지고 세계적인것, 경쟁력을 가진것을 개발생산하는 열풍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가열되고있다. 세포등판과 같은 불모지가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는 천지개벽, 대동강의 축심이 과학의 섬으로 천도개벽한 현실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공화국의 면모를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기간에 회한 농촌도시기 문명개화된 평양의 장천남새전문화농장은 사회주의문명농촌건설

구상의 높이와 목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종다양한 신발들도 날을 따라 문명생활이 향상되는 수요자들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문양과 색, 뒤굽높이를 다양하게 만들어 인기제품, 인기상품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창조력의 높이만큼, 인민사랑의 크기만큼 모든것이 창조되고 날과 달을 이어 대비약, 대혁신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오늘의 시대는 조선이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자위의 핵보유국지위에 당당히 오르고 인민의 리상과 꿈, 문명을 싣고 우주에는 인공지구위성이 솟구쳐오르고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는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민족번영의 찬란한 시대, 사람들이 젊어지고 사회가 활력에 넘치고 나라가 부흥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이다.

애국적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 끝없는 열정과 패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략관, 불굴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힘있게 떨치게 될 강성부흥의 래일이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살리는 길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의 운명개척과 번영을 위한 제나라의 로선이나 정치방식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개척하는 자존의 힘을 가져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랑성서를 좌우하는것이 자주정신과 자강의 힘이다.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흥하자면 국가건설에서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립의 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공화국에 있어서 그 어떤 형태이든 예속은 곧 망국의 길이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언제나 자력자강을 혁명의 기본방식, 국가의 유일한 생존방식으로 내세워왔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자강력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나간다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자력쟁쟁의 모범의 나라, 주체의 강국으로 명성떨치게 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시였다.

오늘도 자강력의 상징으로 힘차게 내달리는 《붉은기》1호전기기관차, 당시 증기기관차를 수리하는것만도 아름답고 여기고있던 제작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고 맨손으로 연길폭을 만들어 싸운 항일의 투쟁전통이 있는 한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결심을 품고 힘과 지혜를 합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4 000여종에 무려 18만개의 부속품을 헤아리는 현대공업의 정수인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라는 심장의 언약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선군길우에서 자위의 핵과 위성도,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우리 식의 CNC기계바다도 펼쳐지게 된것이다.

변이 나던 잊지 못할 그 해 천만라고 하시며 고난속에 키워오신 자강력이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음을 절감하시며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고 하신 그의 말씀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 전체 인민에게 자력쟁쟁의 힘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린다. 이는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민족자존, 민족번영의 제일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강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현실이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짧은 세월에 참으로 많은것을 안아오시였다.

국보급의 몇몇이악단이 태어나고 마식령의 스키바람, 미립의 승마바람, 문수물놀이장에서의 행복의 웃음파도가 련이어 일어났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물결위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등실 떠올라 행복의 절정을 펼치고 명당자리들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른 속도로 천지개벽, 천도개벽되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청년강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일떠섰으며 동해포구에는 《이체어경》이 펼쳐지고 청춘과원들에 온갖 열매가 주렁져인민들의 식탁마다에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넘쳐흐르고있다.

어제날의 꿈이 오늘의 놀라운 현실로 되는 기록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탁월한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사랑하는 인민에게 이 세상 만물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수만리길을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헌지도도강행군은 세기적인 기적과 번영을 안아오고있다.

자기의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중한 애착,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자기의 힘으로 실현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을

새해 2016년을 맞이하는 1월 1일 평양에서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의 섬, 축섬에 새 세기 전진단 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예식을 관망하시였다.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됨으로써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로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과학기술을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가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었다.

이제는 인민들이 누구나 이곳을 찾아 마음껏 현대과학지식의 탑을 쌓으며 최첨단과학의 봉우리를 점령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

였다.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 시려는 높이신 뜻이 어려 있고 전제 인민이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인재로 자라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담겨져있다.

뜻깊은 2016년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여신 경애하는 원수님.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는 공화국이다. 그렇다고 손을 내밀데도 없고 그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는 나라도 없다. 오직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공화국이다.

그러자면 과학을 알아야 하며 모두가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아는것이 힘이고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지난해 과학기술발전에서 거둔 성과들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오던 값비싼 분석용모세관분리탑을 자체로 개발한것, 수십개 나라의 100여개 연구집단이 치렬하게 벌리는 단백질구조예측경쟁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여러건의 연구결과들을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와 국제학술 발표회에 내놓은것, 자연에너기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한것, 풍력에너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것, 석탄의 연소효율을 높이고 전력 생산을 늘일수 있는 과학 기술적담보를 마련한것... 이 모든 성과들은 자력자강의 신념과 의지를 무쇠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 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

년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자체의 역량과 자기의 기술, 자기의 설비에 의거한 자립적경제도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이다.

뜻깊은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최첨단과학연구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고 영 속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체105(2016)년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은 지금 무한한 환희와 격동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갈데 대한 문제 등 올해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신 과업들은 뜻깊은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때로부터 71번째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그 돌기돌기에 하루를 천날맛집이로 겪어온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이 피어올랐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열된 민족이며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하고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단일민족이다. 통일은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것이다.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것이고 5 000여년의 력사와 문화가 깃든 이 땅이 하나로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것이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지난해에 공화국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로 지난해 북남관계가 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돌아서기는 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은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 온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이니, 《위협》이니 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내고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외세와의 공조로 초래될것은 북남대결이며 그 총착점은 전쟁이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신년사에 지적되어있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부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얼얼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었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려놓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

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지난해 8월사래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견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해마다 《년례》라는 간판밑에 진행해오는 위험천만한 《키리졸브》, 《독수리》복합합동연습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지만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담해나설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신년사에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70년을 보내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지금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올해에는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갈데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이라고 하시었다.

통일에국의 술걸로 뉘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르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시대로만 하면 북남관계도 발전하고 올해에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도 펼쳐지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책들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에서 존엄 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2016년 1월 9일

공화국에서 발표된 신년사에 올겨레가 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가 제시되어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 통일운동의 구호이다. 이 구호는 지난 조국통일운동사의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새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투쟁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 지극히 정당한 애국의 구호이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은 온 민족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았다. 지어 지난해 8월에는 원인모를 사건을 구실로

모두에게 높은 민족적자각을 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력사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소동,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승리의 근본원천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이다.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도 민족의 슬기롭고 의지 있는 투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실현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도전을 짓부셔버리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킬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올해에 온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야 한다.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 이것은 민족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있는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을 안겨주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투쟁과제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 이것은 민족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있는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을 안겨주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투쟁과제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의 밝은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다.

자주는 북남이 이미 수십년전에 합의발표한것처럼 통일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자주를 떠나 외세에 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북남관계개선의 위기를 띠게하고 통일위업수행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준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본다. 북남관계가 바르게 진전되자면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기초가 바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 기둥은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관계개선의 기초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하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

민족자주에 밝은 앞날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이것은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의 밝은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다.

자주는 북남이 이미 수십년전에 합의발표한것처럼 통일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자주를 떠나 외세에 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북남관계개선의 위기를 띠게하고 통일위업수행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준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본다. 북남관계가 바르게 진전되자면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기초가 바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 기둥은 지나가는 바람에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관계개선의 기초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하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

존하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맞게 옳바로 해결해나갈수 없다. 우리 나라를 돌로 갈라놓은 외세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가져다줄수도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계속 적대시하면서 침략적인 외세와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밖에 들고나가 《공조》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려놓음

으로써 지난해에도 북남관계는 대결의 늪에서 헤어나올수 없었다.

지난해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지나온 북남관계력사를 돌이켜 보아도 동족을 무시하고 외세의존, 외세공조에 집착되어 동족대결에 매여달리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불신과 대결의 골만이 더욱 깊어지고 민족의 속원인 통일문제해결이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을수 있다.

자주를 떠난 통일문제해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고 《통

도 결실없이 끝나게 된것이 북남의 합의정신에 역행하여 체제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린 남조선당국의 책동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공동선언 존중과 리행》을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정반대되게 북침전쟁과 체제대결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나중에는 6.15공동선언 2항을 리행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남관계가 제대로 풀려갈리 만무하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갈려면 이미 합의된 북남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갈 의지를 표명하여야 하며 그에 저

일의교》라는것도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적인 놀음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을 위하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력사가 보여주듯이 민족공동의 합의를 따를 때 관계개선의 훈풍이 불지만 그 반대로 하면 북남관계는 폭절과 진통, 파국적위기와 충돌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한해만 보더라도 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폭절과 진통을 겪고 모처럼 마련되었던 당국회담

도 결실없이 끝나게 된것이 북남의 합의정신에 역행하여 체제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린 남조선당국의 책동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공동선언 존중과 리행》을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그와 정반대되게 북침전쟁과 체제대결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으며 나중에는 6.15공동선언 2항을 리행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남관계가 제대로 풀려갈리 만무하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갈려면 이미 합의된 북남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갈 의지를 표명하여야 하며 그에 저

촉되게 대결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이룩된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평화,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카톨릭교인들은 올해에도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부활인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의로운 통일애국성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카톨릭교회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리어금

본사기자 김철민

새해에는 누구나 희망과 락관을 기원한다. 하지만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사대매국세력이 새해의 밝은 아침을 무참히 어지럽혀놓았다. 지난해말 남조선당국이 일본과 얼렁뚱땅 빚어낸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침략과 매국의 흥정판

《합의》는 남조선인민들만이 아닌 전체 조선민족,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인류의 분노의 활화산을 뿜게 하였다.

《최종적, 불가역적》?

지난해말의 합의에서 일본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규정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를 군부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감행된 범죄를 은폐시키려는 일본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였다.

더욱이 일본은 《위안부지원재단》에 몇푼의 돈을 들이밀면서도 《배상》은 아니라고 거침없이 떠들었으며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해체를 강요해나섰다.

사회와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한 일본, 말장난으로 요리조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비린 과거를 얼버무리려는 파렴치한 일본의 태도도 경악할만한 것이지만 그에 대응한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자세는 더욱 눈뜨고 볼수 없는 정도였다.

내놓고 큰소리치는 강도의 비위를 맞추느라 빌붙으면서 《최종적, 불가역적합의》라는 일본의 파렴치한 요구에 순응하여 과거회피, 범죄무마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20만명의 조선여성들에게 끼친 일체의 과거죄악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배상을 받아내는 문제만이 아니다.

일제에게 짓밟혔던 민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수호하는 문제이며 부활하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을 비롯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이 일본의 철저한 사회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여온 것도 그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남조선당국은 국가적인 책임과 반성이 없는, 사회와 배상도 아닌 일본의 강도적요구에 《최종적, 불가역적》인 합의도 장을 눌러주어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수치를 남겼으며 인류의 정의를 우롱하였다.

친일은 변할수 없는 혈통이다

백년속적 일본에게 민족의 닢과 얼을 팔아먹은 지난해말의 합의를 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범법 일본이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때문에 더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군국주의적재침을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회담직후 《잃은것은 10억부뿐이다.》라고 한 일본의무상의 발언으로서도 일본은 진심의 반성과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저들의 리권을 위한 강도적 욕망만을 채웠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반면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남조선위정자들, 인류의 량심앞에서 민족방신을 시킨 그들을 조선민족이라 부를수 없음을 두말할 여지없다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그 합의를 두고 《전무후무한 굴욕적협상》, 《사상 최악의 외교적참사》, 《무런 척하고 무기력하게 해버린 항복선언》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백년속적 일본과 사대굴종적인 남조선당국의 야합으로 저물어간 2015년을 보내고 맞이한 새해는 민족자주와 존엄수호의 투쟁으로 밝아왔다.

친일은 변할수 없는 혈통이다

도해온것이 남조선집권자라고 할 때 생각되는 것이 있다.

역시 친일매국은 변할수 없는 혈통이라는 것이다. 《유신》독재자가 일본에 충성을 맹약한 특등친일주구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오까모도중위》로 불리운 일제시기는 말할것없고 50여년전인 1965년 남조선일본 《협정》을 통해 《유신》독재자는 몇푼의 돈을 받고 일본의 침략적인 과거에 《면죄부》를 주었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제2의 《울사5조약》으로 락인한 그 《협정》을 두고 일본이 《1905년의 〈조약〉 이래 6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해 울사년을 영광의 울사년으로 하자.》고 고아대자 《유신》독재세력은 《울사년에 리완용은 영광의 역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역사를 열 것이다.》고 맛장구를 쳤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나고 싸리끼에서 싸리가 나는 법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모든 죄악을 덜어주고 침략의 과거를 되풀이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1965년의 남조선일본 《협정》으로 다시 한번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딴 《10월유신》으로 1인독재를 이루어보려던 철저한 친일분자인 《유신》독재자의 후예가 바로 현 남조선집권자이다.

애비가 못 이룬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사대매국도 파쇼독재도 력사날조도 서슴지 않았던 현 집권자이기에 《유신》독재를 극구 미화하고 부활시키면서 친일의 혈통을 이어 일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유신》독재부활을 추구하는 남조선집권자, 군국주의 부활에 질주하는 일본이 배맛아 빚어낸것이 바로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막뒤에는 누가 있는가

남조선인민들이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야합》이라고 지칭한 남조선일 본회담의 막뒤조종자는 누구였는가.

두말할것없이 미국이다. 몇가지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이미전부터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정계의 인물들은 남조선집권세력을 향하여 《과거사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할것을 강요해왔다.

또 일본의 통신들이 남조선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올해 3월 미국에서 남조선과 일본의 집권자들이 최종타결을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였고 일본의 한 신문은 일본정부가 미국이 환영성명발표준비를 해줄것

합의인 것이다. 그 합의를 배격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을 때 남조선집권자는 오히려 일본에 대고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자.》고 요염을 떨었다.

남조선집권자의 언행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은 친일사대와 매국배종의 무리들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통감하게 된다.

막뒤에는 누가 있는가

을 요청했다고 보도한것을 통해서도 남조선일본 회담주위에 배회한 미국의 검은 그림자를 직감하게 한다.

실제로 그 합의를 두고 어느 한 외신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평하였고 또 다른 외신은 《자각된 량심에 의한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력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통신들은 앞을 다투어 《중대한 합의》로 떠들면서 《미국의 견고한 우방인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된 적대와 불신을 뒤집을수 있을것》이라고 환성을 올렸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지난해말의 합의가 미국대통령의 《외교적성과》로 기록될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으며 미국

무부의 고위당국자는 그 합의에 《미국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시인하였다.

왜 미국이 그토록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조종해왔는가.

한마디로 침략적인 아시아배전락실현에 필요한 세력강화를 위해서이다.

남조선일본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며칠전인 지난 12월 16일에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련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의 핵심은 〈규범에 근거한 질서구축〉이며 이 같은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것은 조약동맹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 미일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유연성과 용기를 발휘해 과거사해결을 위한 전향적접근을 하도록 독려하는 리유》라고 한 그의 발언은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데로 침략의 예봉을 더욱 돌리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지배권을 강화하려는것이 미국의 진속이다.

이에 추종하여 백년속적 일본의 친일공노할 과거범죄를 덮어주는 더러운 입맞춤을 한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쓸개빠진 매국반역집단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새해벽두부터 불어오는 북침화약내

20세기 한차례의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 반세기가 훨씬 넘게 살아오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해왔다.

새해에도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전쟁도발소동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이에 도전하여 새해벽두부터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전쟁화약내를 질게 풍기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1일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경기도 포천훈련장에서는 육군 6군단이 《K-9》 자주포, 《K-1》 전차, 장갑차 등 40여대의 전쟁장비를 동원해 포사격훈련 등 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같은 날 경기도 양평사격장에서 육군 제11기계화보 병사단과 항공작전사령부가 땅크와 무장직승기를 동원하여 야외전술훈련과 공중사격훈련을 벌리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직접 이지스구축함을 타고 조선서해의 열점수역을 돌아치면서 전투기들의 비행을 지휘하고 그 누구의 《도발》과 《대응》을 떠들며 북침을 선동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당국은 올해안에 조선서해 5개 섬들에 다련장로켓포 《천무》와 대형공격직

승기 《아파치》를 배치하려 하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총포성으로 깨버리며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의 책동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더 한층 격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출달음치겠다는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다.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대결소동이 지역의 정세와 북남관계에 얼마나 파국적후과를 끼치고있는가는 지난

8월 조선반도정세가 교전직전까지 갔던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지금처럼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는 화해와 단합은 고사하고 충돌과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초래할것은 핵참화뿐이다. 전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는것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긴장완화와 평화이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무모한 전쟁도발소동이 빚어낸 엄중한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책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남조선 언론이 비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29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에서 비굴하고 굴욕적인 당국을 규탄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일제에게 《충성형서》까지 써 바쳤던 친일파 박정희가 일본과 굴욕 《협정》을 체결하였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의 딸이 또다시 굴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죄하였다.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고 얼마나 더 분노에 치를 떨어야 하는가고 사실은 개란하였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하였다 하면서 여기서도 일본은 잃은것이 없으며 기존립장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사실은 밝혔다. 사실은 일본이 성노예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도의적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빼 놓았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합의》에서 십년이 지난 지금 그 는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라는 성노예문제의 본질적내용을 찾아볼수 없으며 일본이 지원한다

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치유금》이라고 사실은 폭로하였다. 사실은 이것은 일본이 돈을 줄테니 입다물고 있으라는것이 아니라

본사기자

름없다고 비난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에서 중요한것은 일본의 법적책임인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고 사실은 까맣혔다.

사실은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합의》가 일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거래라고 밝혔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적 자존심마저 저버린 《합의》는 3각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를 체결한 당국자의 《국적》은 어딘가고 사실은 규탄하였다.

본사기자